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파견기간	2023학년도 봄학기	성명	정유진
파견국가	호주	소속	공과대학 건축학과
파견대학	Sydney University		

I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한국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살아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면, 대학생의 신분으로 비교적 안전에 대한 걱정을 덜 하면서도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막연하게 2학년이나 3학년 즈음에 교환을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한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가 락다운되었고 코로나가 비교적 잠잠해진 때는 이미 4학년이 되어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더 클 것이라 생각해 교환을 신청했습니다. 교환 프로그램 목표에는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어권 나라를 위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교환은 여행이 아닌 살아보는 경험이기 때문에 다른 영어권 나라를 찾아보면서 거주 환경에 대해 비교하고 고민했습니다. 날씨가 매우 중요했던(교환을 다녀오고 그 생각은 더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영국과 홍콩은 제외하였고, 미국과 호주 중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안이나 문화적 다양성 및 날씨, 교환교의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를 알아본 결과 저는 호주 시드니대학교 USYD 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저는 호주 NSW 주에 위치한 시드니 대학교로 교환을 다녀왔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는 시드니와 멜버른입니다. 멜버른은 예술, 음식, 건축 등으로 유명하며 시드니보다는 조금 더 도시의 느낌을 간직하고 있으며 날씨가 조금 오락가락하는 편입니다. 시드니는 멜버른보다 더 다양한 인종이 살고 해안선을 따라 아름다운 해변이 발달해 있습니다. 시드니는 날씨가 매우 좋은 편이고, 그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가 위치해 있으며 언제나 페리라고 불리는 배(대중교통)를 타고 시드니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드니에서 여름에서 겨울을 냈는데 여름은 기온이 높지만 건조해서 끈끈하지 않고 그늘에 들어가며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서 에어컨이 없는 건물에서도 나를 괜찮았습니다. 또 겨울의 경우 우리나라의 가을~초겨울과 비슷해서 두꺼운 외투 없이도 충분했습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시드니대학교의 경우,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이후부터 담당자분께서 메일로 절차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다른 호주 기관에 비해 답장도 빠른 편이니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여쭙보시길 바랍니다. 호주로의 교환 준비는 크게 비자와 eCoE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 신청 과정의 경우 여러 블로그에서 아주 상세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면 수월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므로 기간을 여유롭게 잡고 신청해야하며, 비자 신청 마지막 단계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에 '교환기간이 끝나면 다시 한국으로 귀국할 것이라는 점, 이곳에서 아르바이트 등 돈을 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야 합니다. eCoE는 시드니 대학교 담당자께서 안내해준대로만 따라서

이수하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oshc(학생보험) 등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비자나 eCoE 관련하여 급하게 연락해야하는 일이 있다면, 메일을 보내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호주는 한국과 시차가 1-2 시간밖에 나지 않으니 직접 전화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IV. 학업 및 현지 생활 안내

건축학과의 경우, 몇몇 수업에서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건축학과는 5년제인데에 반해 호주는 3년제이니 강의 설명을 잘 보고 시간표를 짜시길 바랍니다. 시드니대학교의 경우 수강신청이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나 단과대 웹사이트를 통해 강의 리스트가 담긴 엑셀 파일을 받을 수 있으니 듣고 싶은 강의를 체크하고 강의 시간대가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이후에는 구글에 USYD Timetable 이라고 검색하면 주마다 업데이트되는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드니 대학교 강의는 두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론 위주의 강의인 lecture와 실습이나 토론 위주의 tutorial/workshop/lab 이 있습니다. (서울대학점으로 변환할 때 한 강의라도 lecture 시간과 tutorial 시간을 다르게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수업(이론)의 총 시간은 60 시간이고 그중 lecture는 15hrs, tutorial은 45hrs 라면 $(60 / 15 = 4 \text{ 학점})$ 이 아니라 $(15/15 + 45/30 = 2.5 \text{ 학점})$ 이 맞습니다.) 강의마다 다르지만 보통 lecture는 출석체크를 잘 하지 않고 수업 녹화본도 따로 올려 주셔서 만약 듣고 싶은 두 수업의 lecture 시간이 겹치더라도 수강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tutorial입니다. 학교 교칙 상 tutorial은 두 번 이상 결석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Lecture와 tutorial을 같은 날에 놓지 않아도 되니 학교에 가능한 적게 가고 싶다면 tutorial은 한 두 요일에 몰아서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학교 개강보다 3주 정도 전에 입국하였는데, 개강 전에 여행도 가볼 수 있고 시드니도 둘러볼 수 있어서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입국하자마자 저는 친구와 해야할 일 리스트를 작성하여 1-2일 안에 몰아서 했습니다. 제 리스트를 공유하자면

[외화송금 유학생 지정, usim, 키버디 신청, commonwealth bank 계좌 개설 및 카드 신청, 애플페이 등록, 은행계좌 개설(여권 및 신분증, 호주 거주/숙소 주소, 호주 휴대폰 번호, 학생증, 학생비자), Student card 신청, Sustainable program 신청, First year training course 신청, QMB Checklist 확인, QMB APP LOGIN (residential uni life), USI 코드, student portal personal detail 수정, student card sydpay 충전, QMB cruise 신청, concession card 신청]

등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commonwealth bank 계좌를 개설하여 카드를 받아 사용했습니다. 다만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해외 결제가 가능한 트레블월렛 등을 여분 카드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금을 챙기지 않았고 큰 문제가 없었으나 10만원 정도는 가져가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저는 international students와 다른 교환학생들이 많이 사는 QMB(Queen Mary Building)에 거주했습니다. 1인실에 공용화장실, 공용주방, 독서실, 영화 관람실, 루프탑 등이 갖추어져 있고 공용공간에서 쉽게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시드니는 물가가 비싸고 렌트도 비싸고 외식비도 매우 비싸기 때문에 요리를 해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심지어 교통비도 비싼 편이지만 다행히도 교환학생은 concession card 를 통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때때로 교통 경찰이 버스를 세우고 불시검문을 하기 때문에 concession card 를 이용하실 때에는 꼭 학생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처음 걸렸을 때에는 주의로 끝나지만 학생증이 없이 concession card 사용하는 것이 두 번 이상 걸리시면 200\$ 상당의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을 보여도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대한 여행을 많이 다니려 노력했는데 시드니 안에서는 블루마운틴, 헌터밸리, 포트스테판, 맨리, 뉴타운, 시드니공원, 발모랄, 팜비치, 리틀베이 등을 추천합니다. 또 멜버른, 케언즈, 골드코스트, 퍼스(서호주), 뉴질랜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케언즈와 퍼스는 한 번쯤은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II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교환을 다녀오기 전에는 여행을 많이 다녀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막연하게 해외를 돌아다니는 것에 대한 로망이 분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무언가를 배우고 그를 통해 이전과 다른 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 없이 낯선 곳을 돌아다녀보니 그 자체가 나를 변하게 만든다기보다는 그렇게 낯선 곳에 서 봄으로써 비로소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환을 통해서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저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행복을 느끼고 원래 있었던 세계가 아닌 다른 가능성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외국 친구들, 파티 문화, 여행 등 교환을 생각하면 연상되는 것들이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교환 프로그램은 낯선 곳에서 자신에 대한 탐구하는 시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